

<옥시불매 촉구 기자회견문>

239명 사망까지 몰고 간 가습기살균제

옥시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

대한민국 최악의 소비자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SK케미칼이 1996년에 카펫 향균제로 제조하겠다고 환경부에 신고한다. 그리고 2011년 옥시젯킷벤키저는 PHMG를 첨가한 살균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는 453만개가 판매된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중증폐렴에 걸린 임산부 환자가 급증한다. 원인을 모른 채 임산부 4명이 죽는다. 전염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어졌고,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한다.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된다. 그런데 여기 까지였다. 그 이후 검찰조사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성과가 없었으며,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은 가정이 방치되었다. 피해 소비자의 분노가 넘쳐나는데도 보지 않았고, 기업의 책임을 밝혀달라는 아버지의 울음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하면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가 239명, 피해자는 1528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참사였나? 그렇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시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도 눈 감아주고, 기업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익숙하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그러한 정책이, 그러한 부주의가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데도 침묵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그 공포가 나의 것, 나의 가족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에 이르렀다. 800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였다. 귀찮은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 위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독약을 부었다. 좋은 줄 알고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독약을 마셨다. 이제 남겨진 것은 원인미상의 폐 손상이다. 각종 호흡기 질환과 비염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발병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국내 최고의 석학에게 연구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국내 최대의 로펌이 그를 위해 변호하였다. 수 억 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와 변호사비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소비자를 확보하여 세정제, 의약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사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들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을 망가뜨렸다면 응당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둘째, 가해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 소비자를 해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제 사망신고가 내려져야 한다. 더 이상 시장 경제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기업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온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없다면 기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를 죽이고 다치게 해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살생물제(Bioside)를 비롯한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의 가습기 사건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가 생활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건을 여기까지 몰고 온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정부의 방조와 태만, 기업과의 유착협약에 대하여 대답해야 한다. 검찰의 때 늦은 수사, 사법부의 비협조, 각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를 이제는 들어야겠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청회도 필요하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부 역시 겨냥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여러 소비자단체 회원의 뜻을 모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소비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더 뛰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힘을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더 많이 물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자들과 함께 더 안전한 사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회원 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